

통할수 없는 궤변 - 《북핵폐기》론

최근 남조선집권자가 대외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북핵폐기》를 부르짖고 있다.

얼마전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한 박근혜는 《북의 냉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것》이라느니, 《북의 핵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리의 대상인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에 피대를 돈구였다. 심지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그는 도이쉴란드에 가서 발표한 《드레스덴선언》이라는데서도 《하나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북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느니, 《북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가 잇 및 국제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느니 하는 주재념은 소리도 하였다. 며칠전 남조선에 날아든 오바마의 축덕공론을 벌리는 자리에서도 박근혜는 《〈미국과 함께〉북의 비핵화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느니, 《북의 병전회화는 실패할수밖에 없다.》느니 하는 악담도 서슴치 않았다. 《북핵폐기》, 박근혜의 입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 말방은 지금 가족이나 침에 북남판계를 더욱더 과국의 나락속에 몰아넣고있는 기본요인중의 하나이다.

충고하건대 박근혜는 핵문제의 발생경위와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부터 독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미국의 수십년간 계속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으로 하여 산생되었다는것은 이제 모를 사람이 없다. 또 북의 핵억제력이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강토와 민족의 안녕, 평화를 수호하는 민족공동체의 재부, 정의의 보검이라는데 대해서 지각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

박근혜가 민족의 머리에 핵재난을 들씌우려고 하는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민족의 핵을 《폐기》하라느니 뉘나 하고 양탈을 부리는것은 핵을 구실로 하여 북남판계를 계속 과국으로 몰아가려는 그의 흉심을 적라라하게 보여 줄뿐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침핵전쟁책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침수하여야 한다.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한 박근혜에게 이 모든것을 실현할만 한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는 지능수준을 가지고 그 누구의 《핵포기》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가 미국상전이 제창한 《핵무기없는 세상》을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재념은 수작으로 상전에게 아양을 떨었지만 이는 세상물정을 조금도 모르는 얼간망둥이의 추태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또 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머리우에 핵재난을 들씌운 나라는 다른 나라인 미국이다.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진행된 2 000여차례의 핵시험가운데 가장 많은 회수를 차지한 나라도 바로 미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가진 나라 또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에게 쏠린 세계의 비난을 막아보려고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빗쵸운 개살구를 들고 나왔지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정녕 모른다 말인가.

바로 며칠전에도 오바마행 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에 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저들의 핵무기재고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데 쓰일 예산은 대폭 늘이며 국제사회의 거세찬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박근혜가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상전의 속임수를 진자라고 믿었다면 그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알고도 《북핵폐기》를 운운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가 《신포》라는 조선말의 고유한 의미를 어지럽히면서 《핵문제》를 걸고도 북남판계를 과국으로 몰아가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행위이다.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던 리명박역도가 집권초기부터 임기말까지 북의 《핵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사사진전 물고늘어져 북남판계를 최악의 과국상태에 몰아넣은것이 멀리 않은 시기에 있는 일이다. 문제는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속에 력사의 쓰레기장에 처박혔던 《비핵, 개방, 3 000》이 이름만 바꾸어 박근혜 《정권》에 의해 다시 《부활》한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가 자기의 《대북정책》이라고 광고하는 《신포로세스》이다. 북남사이에 《신포》를 쌓는것을 기본골자로 한다는이 《신포로세스》의 진짜의미가 무엇인가 하는것은 남조선보수세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통해 잘 알수 있다.

《북의 비핵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있다.》, 《북핵불용이 원칙》,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은 어렵다.》,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간에 신뢰가 진전돼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수 있을것》.

이것이 《비핵, 개방, 3 000》과 무엇이 다른가. 《신포》라는 조선말을 억지로 갖다맞추어놓은 《비핵, 개방, 3 000》의 복사판이 아닌가.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신포로세스》를 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리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것》,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북의 비핵화를

걸어놓고 또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단계의 전제조건으로 《북의 진정성있는 선조치》를 제시한것은 방안에 상을 차려놓고 대문과 방문에 2중으로 자물쇠를 채워놓은 격》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박근혜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서 걸림돌은 북핵문제》라는 얼토당토않은 논거를 내놓고 마치 저들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것처럼 요술을 퍼우고있지만 이는 삼척동자에게도 통할수 없는 궤변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그 누구의 《핵문제》때문에 과국상태에 빠져있는것이 결코 아니다.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 마주앉아서는 비방증상증지를 합 의하고서도 돌아서자마자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비방증상에 열을 올리는 파렴치한, 대를 이어오면서 동족대결과 전쟁에 미쳐달뛰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바로 북남관계개선의 가장 큰 암초이다.

남조선집권자가 《북핵폐기》를 부르짖는것은 결국 동족대결광으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궤계를 가리우고 북남관계파괴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어리석은 술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울수는 없는 법이다. 박근혜는 《북핵폐기》를 부르는것은 서문짜리 얄은 수로는 북남판계를 과국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모략광대기의 주범이 빠져나갈 길은 없다

금하였다. 이로써 현 집권자의 당성이 그야말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로 이루어졌다는것이 더욱 명백히 증명되었다.

문제는 박근혜가 정보원원장 남재준을 왜 감싸고있

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박근혜가 남재준의 덕을 단단히 입은 데 있다. 알려진것처럼 남재준은 현 《정권》의 출현과 함께 2013년 3월 정보원원장으로 된자로서 2012년 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사건과는 무관한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남재준은 박근혜의 《대통령당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온자로서 리명박 《정권》에 이어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혈안이 되어 바근되었다. 더우기 그는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으로 현 《정권》의 비법성이 드러나고 민심의 반발이 커지자 정보원의 죄악을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남재준이 불법 《대선》사건의 주요범죄자인 원세훈을 《선거법위반혐의》가 아니라 일반범죄인 《퇴물수수혐의》로 몰아 구속수사하게 하고 불법 《대선》사건을 수사하던 체동욱검찰총장을 그 무슨 《혼외자식》설에 걸어서 사임하게 한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우기 그는 불법 《대선》사건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공무원수뇌분들의 담화록까지 공개하는 천하에 물도 없는 망동짓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는가 하면 최근에는 서술시공무원간첩사건이라는것까지 조작하여 반북대결로 민심의 여론을 기만하려고 날뛰었다.

정보원이 불법비법으로 저지른 《정치댓글》의 도움으로 겨우 권력을 차지한 박근혜에게 있어서 자기의 불법적인 당성을 정당화시

키려는 남재준이야말로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삼살개가 아닐수 없다. 이런것으로 하여 박근혜는 온갖 특대형범죄를 일삼고있는 남재준을 파면시킬데 대한 각계의 한결같은 요구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끼고돌며 적극 두둔하고있는 것이다.

지금 남재준은 력객선침물사교로 온 남조선이 비애와 슬픔속에 잠겨있는 기회를 틈타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서 빠져나오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남재준이 어떤 오그랑수를 써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남조선 각계가 이번의 폭로로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정보원이 지원한 예산이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댓글》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정보원원장 남재준의 증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 진상의 목적을 가짜하고 그를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반북대결과 모략을 일삼는 정보원이 존재하고 남재준이 원장자리에 계속 틀고있있는 한 남조선에서 그 어떤 불법무법의 특대형범죄들이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병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독재권력의 강화를 위해 반북대결을 앞장서고 고취하고 온갖 모략과 날조만을 일삼는 정보원은 해체되어야 하며 그 수장인 남재준은 단호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시 지성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김영일

지성이 어머니 동해기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북녘의 한 소녀가 인사를 드려요 제 이름도 지성이예요 어머니의 딸과 성마저 똑같은 문지성

사랑하는 딸을 찾으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실 지성이 어머니 갈수만 있다면 어머니결로 한달을 달려가고싶어요

바다보다 더 큰 슬픔을 안은 가슴에 한줄기 따뜻한 온기라도 더해주고싶고 어머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 저의 이 작은 손으로 씻어드리고싶어요

한푼둘푼 모은 돈 그 돈이 어머니고생으로 절은 돈이라고 지성이는 안 가졌다 했지요 수학여행을 그 딸이 너무도 대견하고 기록해 어머니는 어서 갔다오라 등을 떠밀고

자식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삼는 어머니사랑 어찌 알았겠나요 그 사랑으로 떠밀어보낸 자식 영영 살아돌아올수 없다는것을

남해가 진도기술에서 피같은 눈물을 흘리실 어머니 동해나 남해나 다 우리 나라 바다인데 어쩌면 동해기술과 남해기술 펼쳐진 현실은 판판 다른가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떠나는 날 품에 안아주며 나의 어머니 행복의 눈물 지을 때 아직도 바다에서 건지지 못한 지성이를 목놓아 부르고부르며 어머니 눈물물을 흘리셨겠지요

통일이 되었더라면 지성이도 여기로 야영을 왔을걸 나와 함께 기쁨의 날과 날 함께 보냈을걸 다른 나라 아이들도 오는 곳인데 왜 한형제 남녘의 아이들만 오지 못하나요

기쁨이 넘쳐나는 동해의 기술에서 눈물로 젖어든 진도의 기술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요 남녘의 아이들에게 말하고싶어요 통일, 통일을 이루고 행복의 기술 동해의 궁전에서 우리 서로 만나요 친딸처럼, 친형제처럼

인원불모지에서 빛어진 재난

적십자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 죽가 마궤든 하는 력객선 《세월》호침몰사건을 놓고 적십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사람들의 정령예방과 치료로부터 건강증진, 여러가지 재난에 대처한 구조와 피해자들의 생활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적십자의 인도주의적사명이고 활동이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한두명도 아닌 수백명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력객선침몰사고와 구조상황을 놓고 경악을 금할수 없었다. 사고발생으로부터 구조대책과 생존자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기

대처능력은 《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끔찍한 력객선침몰참사는 분명 단순한 인제가 아니라 우선과 기만, 철민편과 표리부동인 골수에 뻔 남조선집권자의 부패무능이 가져온 필연적인 특대형 정치적재난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있다. 국민모두가 《세월》호 탑승자들과 같이 화를 느끼며 개탄하고 죽음의 땅에서 탈출하겠지만 울분을 토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언론들과 사회여론도 《세월》호침몰참사는 《후진국형참사》, 남조선 《정부》는 학생들이 배안에

서 죽는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다. 《정부》가 참사 대응은 탈팽이처럼, 실종자 가족들의 시위집안은 번개처럼 한다고 비난하고있다. 당연하다. 명백하건대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고 세계가 지켜보는 지금의 특대형참사는 재난대비와 관리능력이 너무도 부실한탓에 한명한명의 목숨이라도 더 앓아간 인민불모지의 구조참사이기도 하다.

나는 력객선침몰참사를 대하는 남조선당국의 반민륜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처사에 치웃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김철수

책임회피는 아이들의 두 별 죽음이다

한날한시 수백명의 목숨을 앓아간 남조선의 력객선침몰사고소식은 지금 우리 대학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치웃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어쩌면 남조선당국이 그리도 무능하고 매정할수 있단 말인가. 수백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구조대책 없이 바다에 수장시켰으니 남

조선당국자들이야말로 엄벌을 받아야 할 범죄집단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것은 책임회피에 난 물두하는 집권자의 처사이다. 사고책임의 장본인인 그가 낫가죽이 장루위도 분수가 잊지 도대체 무슨 체면에 《책임》이요 뭐요 하는가 하는것이다. 책임회피는 유가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인 동시에 죽은 아이들에 대한 두별 죽음이나 같다. 박근혜가 한조각의 량심이라도 있다면 책임을 남한데 따돌릴것이 아니라 자신이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학생 김철명

반인민적정치, 황금만능의 썩은 세상이 빚어낸 대참사

얼마전 남조선에서 일어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본사기자는 남조선정세전면과 량세철과 대담을 가지였다.

기자: 대형력객선 《세월》호침몰사건이 지금도 남조선을 뒤흔들고있고 있다. 한겨번에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이번 대규모참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량세철: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경에 남조선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앞바다에서는 제주도로 가던 력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배에는 476명이 타고있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172명밖에 안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배와 함께 바다에 수장되어 목숨을 빼앗겼다. 남조선에서 대형력객선이 침몰한것은 이번까지 모두 네번째이며 《세월》호의 침몰은 1993년 전라북도 부안앞바다에서 발생한 서해 《체리》호침몰사건(사망자 292명)이후 최악의 참사이다.

기자: 어떻게 이런 특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량세철: 력객선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설이 나돌고있지만 배가 선회하다가 집이 쏠리면서 기울어져 침몰했다는 설이 우세하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번 대형참사의 주인공인 《세월》호는 일본에서 근 20년동안

리용한 중고품이다. 남조선의 선박회사들에서는 력객선건조는 자금이 많이 드는 《밀지는 장사》라고 하면서 돈벌이가 잘되는 화물선만 대체로 건조하고있다. 이런 데로부터 해운회사들에서 리용하는 력객선은 주로 다른 나라들의것을 사다가 싸웠는데 새것은 비싸다고 하여 적은 돈을 들여 중고품만 들여왔다. 그리하여 현재 남조선에서 운영되고있는 170여척의 력객선중 자체로 만든 력객선은 불과 3척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이나 유럽나라들에서 중고품으로 들여온 것들이며 그것마저도 60%가 수명이 15년이상 지난 파고철들이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가 람속스런 자본가들이 리윤추구를 위해 항행의 안전을 위한 초보적인 규정도 잘 지키지 않고있다. 《세월》호도 바로 화물선이 아닌 력객선에 짐을 초과로 적재했고 그것을 대단히 고정하지 못함때 사고요인이 있는것 같다고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즉 사람의 생명전보보다 돈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할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사고가 나자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구조대가 인차 도착하니 덤비지 말라고 하고는 저들만 먼저 탈출하였다. 또 사고발생후 배가 완전히 침몰되기까지는 무려 2시간, 이 시간동안 수많은

생명들을 얼마든지 구원할수 있었겠지만 구조에 동원된 잠수부들자체가 목숨이 두터워 뻔히 지켜보면서 선뜻 바다에 뛰어들지 않은 사실, 해경들도 《인명구조》라는 말이 아니라 선박을 구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چون부인한 사실 등 시간이 갈수록 낱알이 드러나는 사실여부들은 이번의 참사를 《인재》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를 지어주고있다.

기자: 지금 남조선에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무능한 정부》에로, 박근혜에게로 쏠리고있지 않는다. 량세철: 그렇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 전라남도를 포함하여 남조선전지역에서는 《정부는 살인마》, 《무능한 정권,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등의 프랑가드들을 들고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고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이렇듯 《정부》에로 쏠리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사고발생후 《정부》의 초기대응이 매우 허술했고 그로 인해 살릴수 있는 아까운 생명들을 무더기로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조선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태수습에 달라붙었다고는 하지만 통일당인 장악과 수습체계를 세우지 못해 구조작업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다. 사고

해역에서 중앙본부외에도 지방과 해양경찰, 군대가 저마다 나서서 주인항해를 하는가 하면 저마궤 사고대책본부들을 현지에서 차려놓고 상황을 발표하는 놀음을 하는 말이 아니라 선박을 구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چون부인한 사실 등 시간이 갈수록 낱알이 드러나는 사실여부들은 이번의 참사를 《인재》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를 지어주고있다.

사고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원성이 점차 높아가자 《정부》는 민심을 녹작하는데만 신경을 쓰면서 인명구조에는 관심전력하지 않았다. 명색이 남조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는 자신에 대한 비난여론확대를 봉쇄하고 다른쪽으로 떠넘기는데에만 골몰하고 사죄한다는 생색만 널본 지금까지 진심어린 사죄는커녕 자기가 지닌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라는데서 《그 동안 쌓여온 모든 죄책을 도려낼것》이라거니 《잘못된 관행과 민관유착, 공직사회

의 문제 등을 바로잡을것》이니 하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였다. 마치 저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듯이 말이다. 사회와 반성은커녕 지지를이 떨어질것만을 우려하며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을 류언비어류포도로 처벌하였다. 그 엄포를 놓고, 피죄물총리를 제물로 내던진 《총리예교정질론》과 정계나무땡

이들앞에서 연출한 비공식적인 사과놀음, 가짜유가족을 만들어놓고 진행한 조문놀음 등 박근혜가 벌려놓은 놀음들은 일반 서민의 목숨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랑행인간, 바람에 흔신이 빚어졌다. 결국 며칠이 지나도록 승객은 얼마인지, 실종자수는 얼마인지도 똑똑히 파악하지 못한채 오락가락하기만 했다. 사고를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도 문제이다.

사고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원성이 점차 높아가자 《정부》는 민심을 녹작하는데만 신경을 쓰면서 인명구조에는 관심전력하지 않았다. 명색이 남조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는 자신에 대한 비난여론확대를 봉쇄하고 다른쪽으로 떠넘기는데에만 골몰하고 사죄한다는 생색만 널본 지금까지 진심어린 사죄는커녕 자기가 지닌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라는데서 《그 동안 쌓여온 모든 죄책을 도려낼것》이라거니 《잘못된 관행과 민관유착, 공직사회의 문제 등을 바로잡을것》이니 하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였다. 마치 저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듯이 말이다.

사회와 반성은커녕 지지를이 떨어질것만을 우려하며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을 류언비어류포도로 처벌하였다. 그 엄포를 놓고, 피죄물총리를 제물로 내던진 《총리예교정질론》과 정계나무땡

《세월》호의 침몰은 그대로 통째로 무너져내리는 남조선사회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통해서도 남조선사회야말로 황금만능의 사회, 극도의 개인주의가 인간의 생명을 마음껏 해치며 범람하는 썩어빠진 사회라는것을 똑똑히 느끼게 된다. 아울러 인간의 생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그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다.

